

지니 서의 공간의 드로잉

지니 서의 초기 드로잉은 종이 위에 여러 번 덧칠한 얇은 물감층들과 반복적인 선들을 통해 평면 안의 다양한 공간층들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에는 마치 점막과도 같은 부드럽고 유동적이며 유기체적인 형태와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 딱딱한 표층, 예컨대 껍질이나 피부, 혹은 집과도 같은 보다 구조적인 형태가 공존해 왔다. 여기에는 마치 무언가 분명하게 정의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상태로 흐르고 있는 에너지와 보다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들이 맞닿아 있는 현실을 형상화해 놓은 듯한 공간이 있었다.

지니 서가 두 번째 개인전에서부터 선보인 페이퍼 컷 드로잉 - 해부용 칼로 평면 드로잉의 선들을 오려내어 실제 공간에 설치하는 - 은 평면 공간 속에 시각적 일루전으로서 잠재되어 있던 얇은 층들의 표피를 한 커씩 박리 시켜 3차원의 실제 공간 속에 위치시킨 것이다. 또한 브레인팩토리에서의 작업은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방의 구조를 이용하여 오려진 평면의 층들을 안쪽 방에서 바깥쪽 방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오게 설치함으로써 실제 공간의 건축적 구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작업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지니 서는 평면 속의 공간들을 해체하기 시작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자신만의 심리적, 시각적 공간을 드러내 보이며 그 공간을 좀 더 공적으로 확장시켜 왔다. 지니 서의 평면이 담고 있던 여러 층들 사이의 경계면들은 지니 서가 섬세하게 경험했던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사이의 공간들뿐만 아니라 내부적 조작과 그것을 덮는 외부의 표피, 평면과 입체, 육체와 정신 사이의 공간들에 대한 은유였다. 이러한 사이의 공간은 이제 각각의 물체나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서로 조우하는 사이의 공간들로 확장되어 좀 더 물리적인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Leeum 삼성미술관에서의 작업은 관객들에게 이러한 사이의 공간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작업이다. 미술관의 건축적인 요소들에 긴밀하게 반응하면서 세워진 〈In Transit〉은 여러 선들과 면들의 궤적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공간이다. 하지만 여기에 관객들의 시선과 움직임이 교차될 때 이 작품은 비로소 완성된다. 시각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관객들은 자신의 위치와 시간에 따라 시각의 양상을 달리하는 자신만의 공간을 '발견' 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공간을 전혀 새로운 다른 장소로 바라보게 된다.

평면 작업에서부터 지니 서의 작업에 일관되게 나타난 공간에 대한 관심은 입체적인 드로잉, 더 나아가 공간에 대한 드로잉이라 할 수 있는 최근의 작업에서는 선, 색, 형태 등과 같은 조형적 시각언어들의 아름다운 조합뿐만 아니라 빛, 시간, 움직임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더욱 풍부하고 섬세해졌다. 그의 작업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가 점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러한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인 시선일 것이다.